

수난의 역사와 부침 함께한 '실록'

임란때 3개 사고(史庫) 불타... 적상산본은 6.25때 평양에

지난 1990년 10월, 재독 작곡가 윤이상(1912~1995)의 주도로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취재하러 북한에 갔던 서울측 기자들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그곳 희귀본 열람실에서 '이왕가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이란 장서인이 찍힌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을 발견한 것이다. '이왕가'의 도서관엔 구황실도서실이었던 창경궁의 '장서각' (수년 전에 철거됨)에 있던 책들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원래 장서각에는 전남 무주의 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에 있던 조선왕조의 역대 실록이 소장돼 있었는데, 6·25때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화재로 불타 없어진 것으로 믿어져왔다. 그러나 1978년 북한 사회과학원 장 홍기문이 《력사과학》지에 실린 글에서 "1950년 7월 서울을 점령했을 때 한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왕조실록》 원본을 평양으로 옮겨왔다"고 밝힘으로써 우리쪽 학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일성대학 도서관의 사서는 바로 그 실록 원본이 북한의 국가귀중문서 서고에 비장돼 있음을 증언하고 있었다. 기자들이 본 것은 1930년대초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서 사진판으로 간행한 30부 가운데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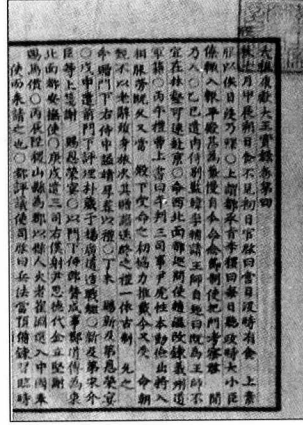
역대 실록의 운명은 기구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조선전기의 역대 실록은 경북 궁 안 춘추관을 비롯해 충주·전주·성주 등 4개 사고에 각1부씩 보관되었는데, 임진



'이왕가 도서관'이 찍힌 《태조실록》과 옛날의 '오대산사고' 전경. 오대산사고는 1·4후퇴 때 아군이 작전상 불태워 버려 주춧돌만 남았다.

왜란(1592)때 위낙 눈썹박히는 사이에 성주·충주·서울이 함락되는 바람에 이들 세 군데 사고의 실록은 몽땅 불타버리고 말았다. 오직 한군데,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만은 그곳 유생들에 의해 정읍 내장산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해주~강화를 거쳐 평북 영변의 묘향산 보현사로 옮겨짐으로써 천만다행하게도 태조에서 명종에 이르는 13대의 실록은 명맥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이 전주사고본을 저본으로 하여 1603년(선조 36)부터 3년간에 걸쳐 각3부씩 복본(複本)을 인쇄, 초고본 1부를 합쳐 모두 5부의 실록을 서울의 춘추관과 마니산(강화도)·태백산·오대산·묘향산 등 네군데 산속에 새로이 설치한 사고에 각1부씩 보관했다. 이때 원래의 전주사고본(원본)은 강화사고에, 나머지에 새로 찍은 복본을 두었다.



병자호란(1636) 이후에는 사고에도 변동이 생겨 기존의 태백산·오대산사고 외에 강화도 정족산(마니산사고)의 화재로 이리로 옮김)과 무주 적상산에 새로 사고를 짓고, 묘향산사고에 있던 역대 실록은 적상산사고로 옮겼다. 일제강점(1910)후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조선총독부 학무과로 이관되었다가 1930년 경정제대 규장각으로 들어갔고, 오대산본은 일본 동경제대로 옮겨졌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 때 대부분이 불탔다. 그리고 적상산사고 실록은 창경궁 장서각으로 이관되었다가 6·25전쟁중에 평양으로 빼돌려졌던 것이다.

현재 국보 제151호로 지정돼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본(서울대 규장각 소장) 848책, 태백산본(부산 정부기록보존소) 1,181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낱장본 21책, 도합 2,077책에 이른다. (W)

출판저널

통권 제216호 / 1997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규정 준수를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임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좋은 느낌

빈/칸/만/들/기

일러스트레이션
 만화기획
 캐릭터 개발
 출판사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66-56 대동빌딩 302호
 전화 838-4350 팩스 838-4350
 핸드폰 011-769-4350

책의 모든것 !!



도서 문의 및 주문하실곳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20-42(2층)
 전 화 : (02)388-8401~3
 (아간)389-2284
 팩 스 : (02)388-0093

월간 『문예2000』 수습기자 및 한국시문화회관 운영직원을 모집합니다.

“어문계열 출신으로서 문학에 관심있는 젊은이로 문예창작에 재능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출판 (각각 편집, 취재, 오퍼레이터) 어린이글쓰기교실 교사, 총무(※각 부문 경력자 환영합니다.)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본인의 작품 ※ 잡지기자 및 편집 유경험자는 자신이 제작한 인쇄물이나 책 첨부요망
 4. 접수기간 및 장소: 1997년 6월 20일~6월 30일까지 / 한국시문화회관
- ☎ 문의전화: 764-6352, 766-4320 (FAX 겸용)

한국시문화회관 월간 『문예20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74-38 성인빌딩